

# 영어 접속명사구의 일치\*

박 효 명

## 0. 서 론

자연언어의 일치현상 가운데 등위구조와 관련된 일치를 설명하는 것은 어려운 과제중의 하나이다. 이 글은 핵어문법(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의 틀 안에서 이미 Pollard & Sag(1992)가 제시한 일치이론을 바탕으로 영어 접속명사구의 일치를 설명하고, 일치이론을 보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먼저 핵어문법이 언어기호와 정보, 하위범주화와 일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가정하는 문법적 기제(mechanism)를 설명한다. 이어서 접속이론에 바탕을 둔 접속명사구의 일치를 이미 제시된 방법으로 설명하고 이를 보완하는 과정을 거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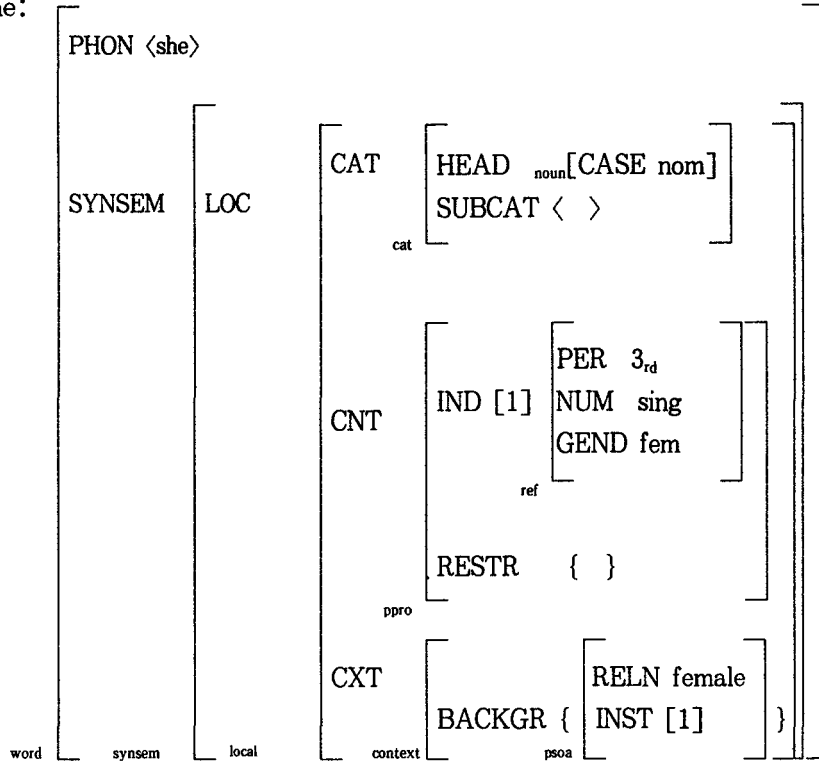
## 1. 언어기호, 언어정보와 하위범주화

핵어문법은 언어기호를 어휘기호와 구절기호로 나눈다. 이 기호는 모두 음운, 통사, 의미 및 담화적 정보와 구절구조적 정보를 구조화한 복합체이다. 이런 의미에서 핵어문법은 정보기반 통사의미론(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러한 정보는 속성-속성가행렬(Attribute-Value Matrix, 이하 AVM이라 함)로 나타낸다. 어휘기호 she는 (1)과 같은 정보를 가진 AVM으로 나타낸다.

AVM에 표시된 용어를 살펴보면, 각 열의 왼쪽 아래에 있는 *cat.*, *ref.*, *ppro.*, *word*, *synsem.*, *local*, *context*, *psoa* 등은 기술하려는 언어적 대상물을 가리킨다. PHON은 음운적 정보를 보이는 속성으로 영어의 정서법으로 간략하게 나타낸다. SYNSEM | LOC은 통사와 의미에 관련된 정보를 나타내는 속성이다. CAT은 통사적 정보를 나타내는 것으로 HEAD와 SUBCAT으로 이루어진다. HEAD는 핵어(head)가 가지는 통사범주를 나타내는 속성으로, (1)에서 그 값은 NP[nom]이다. SUBCAT은 하위범주화를 나타내는 속성이다. 이 속성

\* 이 글은 전남대학교 학술진흥재단의 도움을 받은 것임.

(1) sh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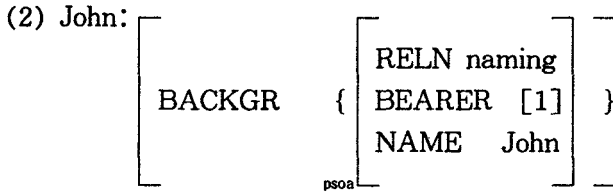


(Pollard &amp; Sag, 1992: 7)

은 핵어가 보어(complement)를 취하는 결합가(valence)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값은 < > 안에 결합하는 기호의 통사의미적 정보를 나열한다. 이 속성은 일치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설명의 편의상 다음에 상술한다.

속성 CNT는 기호의 의미해석에 있어서 문맥독립적인 정보를 나타낸다. IND는 명사류(nominal)의 지시(reference)를 나타내는 지표(index)로 담화표상이론(Camp:1981)의 지시표지(reference marker)와 상황의미론의 변수(parameter)와 유사하다. IND는 그 값으로 격자질을 제외한 인칭을 나타내는 속성 PER와, 수를 나타내는 속성 NUM, 그리고 문법적 성을 나타내는 GEND를 포함한다. RESTR는 IND에 의미적 제약을 가하는 속성으로 변수화사태(parameterized state of affair, 이하 psao로 줄임)의 집합을 그 값으로 가진다.

속성 CXT는 기호의 의미해석에 있어서 문맥의존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BACKGR는 IND의 가능한 자리매김(anchorage)을 제약하는 psao의 집합을 값으로 가진다. 이 psao는 RESTR의 값과 다르게 발화맥락(utterance context)의 적절조건(felicity condition)으로 생각할 수 있다. 고유명사 'John'의 문맥의존적 정보를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위 (1)에서 보듯 [1]은 기술하려는 대상이 가진 정보를 간략하게 대신하는 역할과 이 대상들이 가지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보여주는 두 가지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를 대역기호(tag)라 부르기로 한다. CNT | IND [1]은 [PER 3rd, NUM sing, GEND fem]을 대신하며, 아래에 있는 CXT | BACKGR {[INST [1]]}과 일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한다. 언어기호는 그 종류에 따라 가지는 정보가 달라진다. 따라서 정보의 내용에 따라 이를 표기하는 방법이 달라진다. 여러 가지 정보를 기술하는 방법과 관련된 더 많은 내용은 Pollard & Sag(1987, 1992)에 실려 있다.

이제 하위범주화 정보를 자세히 살펴보자. SUBCAT은 핵어와 보어가 결합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속성이다. 결합되는 기호는 < > 안에 사격성(obliqueness)의 정도가 낮은 것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나열된다.

- (3) a. sleep: [SUBCAT <NP[nom]>]
- b. love: [SUBCAT <NP[nom], NP[acc]>]
- c. give: [SUBCAT <NP[nom], NP[acc], NP[acc]>]

완전자동사 'sleep'은 주어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주격명사구만이 나열된다. love와 give는 주어 이외에 각각 제1목적어와 제2목적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필요한 격에 관한 정보를 가진 명사구가 순서에 따라 나열되어 있다. (3)의 SUBCAT의 값은 단순히 통사적 정보만을 나열하고 있지만 값으로 나열되는 기호는 본래 통사적 정보뿐만 아니라 의미와 화용적 정보의 복합체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든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일치를 설명하는 데 필요한 의미적 정보인 지표(IND)를 포함하도록 하면 하위범주화되는 각 범주는 고유의 지표를 가지게 된다.

- (4) a. sleep: [SUBCAT <NP[nom]: IND>]
- b. love: [SUBCAT <NP[nom]: IND, NP[acc]: IND>]
- c. give: [SUBCAT <NP[nom]: IND, NP[acc]: IND, NP[acc]: IND>]

(4)에서 가장 단순한 주어-술어로 된 문장을 살펴보자.

- (5) a. She sleeps.
- b. sleeps: [SUBCAT <NP[nom]: [[PER,3rd], [NUM sing], [GEND fem]]>]

핵어 sleeps는 3인칭 단수 주격명사구(third person singular nominative NP)를 하위범주화한다. 만일 이 명사구가 (5a)의 she라는 기호라면 성(gender)의 구별이 이루어져 (5b)와 같이 보장된다. 이 경우에 복잡한 표기를 피하여 읽기 쉽도록 (6)과 같이 줄여 쓰기도 한다. 아래첨자로 표기한 [1]은 [3rd, sing, fem]을 대변하는 것으로 지표를 간단하게 보여주고 다른 요소와 정보를 공유할 때 편리하게 쓸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다.

(6) sleeps: SUBCAT <NP[nom]<sub>[1]</sub>[3rd, sing, fem]>

이상에서 살펴 본 하위범주화 이론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주어가 다른 보어와 마찬가지로 핵어에 의하여 선택된다.<sup>1</sup> 둘째, 선택되는 보어에 격을 부여하는 것은 특별한 격이론(case theory)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위범주화의 일부로 이루어진다. 셋째, 관련된 정보를 한 묶음으로 나타내는 대역기호 [1], [2], [3] 등은 핵어문법의 중요한 기제(mechanism)로서 관련된 요소들이 정보를 공유한다는 사실을 쉽게 표현하는 이점을 가지고 있으며, 대개 의미적 정보를 대신하고 있다.

## 2. 핵어문법의 일치

일치현상을 설명하려는 언어이론은 적어도 다음 세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i) 일치에 참여하는 구성요소가 무엇이며, ii) 이 요소들의 일치의 내용이 무엇이며, iii) 이를 기술하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정의하여야 한다. 통상 변형에 의지하여 일치현상을 기술하는 방법은 통사구조상에서 일치와 관련되는 모든 자질(feature)을 근원범주(source)로부터 목표범주(target)로 이동하거나 복사(copying)하는 것이다. 반면에 핵어문법은 일치현상을 단순히 통사적 현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언어사용의 모든 국면을 망라하여 구조의 공유(structure-sharing)에 의하여 기술한다. 이 절은 접속명사구의 일치를 분석하기 위한 예비 단계로서 핵어문법이 제시하는 문법적 기제와 단순명사구와 이에 대응하는 요소간의 일치를 다룬다.

언어에 따라 요소들 사이에 격의 일치를 보이는 경우가 있다. 영어는 요소간의 격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 언어이므로 구태어 이를 언급할 필요가 없으며 앞에 말한 하위범주화 과정의 일부로 명사구에 격을 부여하는 정도의 언급으로 충분하다.<sup>2</sup> 그러나 Latin과 독일어와 같은 격의 일치를 보이는

<sup>1</sup> 그러나 주어를 자매범주(sister category)인 보어와 다르게 문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입장은 Pollard & Sag(1992: ch. 9)와 Borsley(1987, forthcoming)을 참조하시오. 이 입장을 받아들이면 일치를 설명하는 문법적 기제는 크게 달라져야 할 것이며, 이 부분은 이 글에서 제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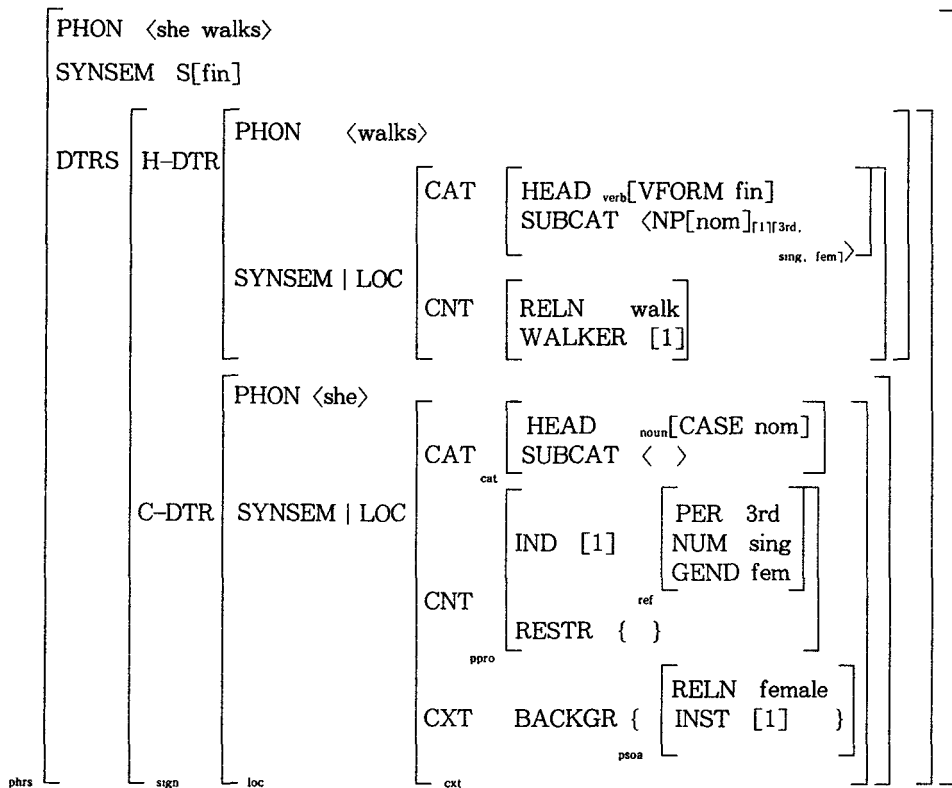
언어는 별도의 통사적 기제에 의하여 설명된다. 반면에 일치라는 전체적인 개념을 핵어문법은 의미론과 화용론을 포함한 넓은 의미의 의미론적인 현상으로 파악한다.

2. 1. 주어-동사의 일치

영어의 대표적인 일치현상은 주어와 술어동사의 일치이다.

(7) a. She walks.

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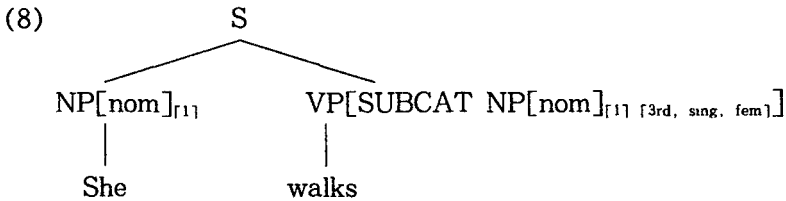


<sup>2</sup> (i) a. We<sub>i</sub> can't stand for people to disagree with us<sub>i</su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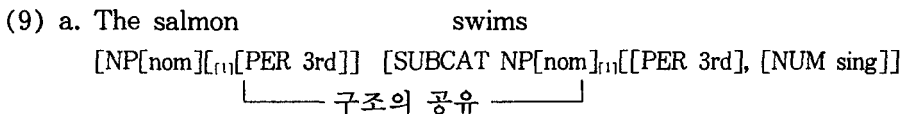
b. She<sub>i</sub> claims her<sub>i</sub> bike has been stolen. (Pollard & Sag, 1992: 82, 83)

We<sub>i</sub>와 us<sub>i</sub>, She<sub>i</sub>와 her<sub>i</sub>는 서로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들이 의미적 국면에서 일치를 보이지만 격의 일치를 보이지 않는다. 그러나 라틴어와 독일어는 격의 일치를 가장 잘 보여주는 언어들이다. 이러한 언어를 다루는 방법은 통사적 국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Pollard & Sag(1992: 91-95)에 제시되어 있다. 다만 영어의 일치를 분석하는 경우에 별도의 기술방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격에 관한 정보는 하위범주화 정보의 일부로서 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7b)는 (7a)를 AVM으로 보인 것이다. 먼저 핵어 walks가 하위범주화된 요소인 NP[nom]<sub>[r1]</sub> [3rd, sing, fem]와 결합하여 문장을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 이제 대역기호로 나타내진 부분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WALKER [1]]은 동사 walk의 의미적 정보의 일부로 WALKER의 역할(role)을 하는 것이 [1]임을 나타낸다. 인칭대명사 she의 비문맥의존적인 의미정보의 일부인 [IND [1]][[PER 3rd], [NUM sing], [GEND fem]]은 결합하는 명사류의 지표가 [1]이며, 그 내용은 3인칭 단수 여성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문맥의존적 의미정보의 일부인 [BACKGR {[RELN fem], [INST [1]]}]은 보어가 여성이며, 언어사용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드러난 예가 [1]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대역기호 [1]은 통사와 의미적 국면에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보여주며, 특히 하위범주화는 문장을 구성하는 구성요소의 통사적 관계를 보여준다. 이 통사적 관계에 있는 주어와 하위범주화 정보의 일부인 지표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여 주어와 술어동사 사이에 수, 인칭 그리고 성의 일치치를 보장되도록 함으로써 주어-동사의 일치치를 설명한다. (7b)는 일견하여 다소 복잡한 편이다. 이를 일치와 관련된 부분을 가려 익숙한 수형도에 구조의 공유를 나타내는 대역기호를 이용하면 주어-동사의 일치치는 훨씬 쉽게 파악할 수 있다.



이제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들이 가지는 정보의 근원을 살펴보자. 발화에서 사용된 기호의 어휘형태와 기호가 발화의 맥락에서 차지하는 정보는 기호가 가질 수 있는 정보이므로 어휘형태와 화맥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얻는다. 이 가운데 어휘형태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를 보자. 굴절언어의 어형변화는 여러 가지 내용의 일치치를 나타내는 역할을 한다. 이에 따라 일치에 관한 정보는 일치적으로 어형변화에 의존한다. (8)의 인칭대명사인 she와 동사 walks는 이런 정보를 대표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굴절형태가 완벽한 정보를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라면 AVM으로 완벽한 정보를 표시할 수 없게 된다. 부득이 그 형태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만을 모아 자질구조를 부분적으로 명세하는 도리밖에 없다.



b. The salmon swim  
 [NP[nom]<sub>[r1]</sub>[PER 3rd]] [SUBCAT NP[nom]<sub>[r1]</sub>[[PER 3rd], [NUM plu]]  
 └────────── 구조의 공유 ─────────┘

c. \*You swims  
 [NP[nom]<sub>[r1]</sub>[PER 2nd]] [SUBCAT NP[nom]<sub>[r1]</sub>[[PER 3rd], [NUM sing]]  
 └────────── 구조의 공유 불가 ─────────┘

주어인 The salmon은 그 형태로 보아 단수와 복수를 구별할 수 없으므로 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따라서 자질구조의 부분적 명세(partial specification)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일치에 참여하는 주어가 가지는 [PER 3rd]와 동사가 가지는 [[PER 3rd], [NUM sing]]는 자질구조에 있어서 양립(compatible)한다. 반면에 (9c)의 경우에 주어가 가지는 [PER 2nd]와 동사가 가지는 [[PER 3rd], [NUM sing]]는 양립하지 않는다. 이 양립할 수 없는 자질의 명세는 (9c)의 비문법성을 예측하도록 해준다. 이처럼 핵어문법은 일치에 참여하는 두 요소의 자질구조가 어휘형태로부터 그 정보를 얻는 경우에 비록 불완전한 부분적 명세일지라도 양립할 수 있는 것이라면 이를 허용한다. 하위범주화와 구조의 공유는 비록 양립할 수 있는 부분적인 명세를 가진 요소라 하더라도 두 요소간의 일치를 보장하는 효과를 가진다.

## 2.2. 명사구와 조응요소의 일치

영어 명사구는 문장 내에서 선행사(antecedent)로 쓰이고 이에 대응하는 조응요소와 수, 인칭과 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현상을 보여준다.

(10) He is kidding himself.

(10)의 주어인 선행사와 조응요소인 재귀대명사는 [NUM sing], [PER 3rd], [GEND masc]에 있어서 서로 대응한다. 이러한 대응관계는 두 요소가 지표를 공유하도록 하면 두 요소간의 일치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를 위하여 핵어문법은 다음과 같은 결속이론(binding theory)을 제시한다.

(11) 결속이론

Principle A: A locally o-commanded anaphor must be locally o-bound.

Principle B: A personal pronoun must be locally o-free.

Principle C: A non-pronoun must be o-free.

(Pollard & Sag, 1992: 293)

이 원리는 얼핏 보아 형식상으로 GB 이론의 결속이론과 유사하다. GB 이론은 구성요소의 통어(command)라는 개념을 바탕으로 결속이론을 정의하는 반면에 핵어문법은 구성요소의 사격성(obliqueness)을 바탕으로 결속관계를 기술한다. 이 가운데 A-원리는 조응요소가 문장의 경계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그 선행사와 묶이는 것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10)의 주어인 선행사와 조응요소인 재귀대명사는 공지표(coindex)된다. 공지표는 선행사와 조응요소가 지표를 공유하도록 하여 두 요소는 일치하게 된다. 결속이론으로 주어지는 정보를 하위범주화 정보에 포함하여 나타내면 (12)가 된다.

(12) SUBCAT <NP<sub>i</sub>: ppro, NP<sub>i</sub>: ana>

(12)는 핵어의 하위범주화 정보에 의미적 지표가 포함되고 이 정보를 인칭대명사와 조응요소가 공유하는 것을 보여준다. 더 자세히 말하면 수, 인칭과 성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어 선행사인 He와 조응요소인 himself는 서로 완전히 일치하게 된다. 이처럼 하위범주화 이론과 결속이론에 의하여 의미적 지표를 공유하도록 하여 선행사와 조응요소 사이의 모든 일치관계를 설명한다.

이제까지 논의한 명사구의 일치를 요약하면, 첫째,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들은 통사적으로 주어와 동사, 선행사와 조응요소이다. 둘째, 이 요소들의 일치의 내용은 의미적 정보의 일부인 지표이다. 셋째, 통상 근원범주로부터 목표범주로 모든 일치자질을 이동하거나 복사하는 종전의 방법과 다르게 일치를 설명하는 기제는 하위범주화, 결속이론과 구조의 공유이다. 넷째,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의 정보를 부분적으로 명세하는 자질구조를 인정하는 점이다. 이 또한 자질의 이동이나 복사를 이용하는 통상적 방법이 모든 일치자질을 적용 대상으로 삼는 것과 다른 면모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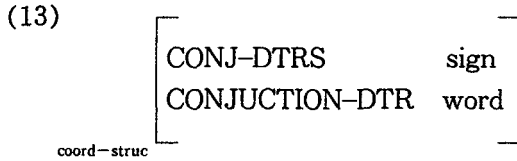
### 3. 접속이론과 접속명사구의 일치

접속명사구는 단순명사구가 아니라 접속이론(coordination theory)에 의하여 이루어진 명사구이다. 잘 알려져 있는 바와 같이 자연언어의 일치현상을 설명하는 데 가장 어려운 문제를 제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접속명사구의 일치현상이다. 이 절에서는 핵어문법이 제시한 일치이론을 바탕으로 접속명사구가 주어와 선행사로 쓰일 때 각각 동사와 조응요소와 일치하는 현상을 분석하기로 한다.



### 3. 1. 접속이론

접속명사구의 일치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접속명사구가 등위구조의 한 예라는 점에서 먼저 등위구조를 기술하는 접속이론이 필요하다.



(13)은 등위구조를 나타내는 AVM이다. 접속구인 자범주를 나타내는 속성 CONJ-DTRS의 값이 기호이므로 접속구는 어휘기호 혹은 구절기호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13)은 어휘접속구조(constituent coordination)나 구절 접속구조(phrasal coordination)를 모두 포괄하는 대단히 일반적인 것이다. 단층위구조(monostratal)를 전제하는 핵어문법은 일반구구조 문법(GPSG)과 마찬가지로 접속사에 의하여 결합하는 자범주와 모범주간의 관찰관계를 보여주는 등위접속규칙(coordination schema)과 접속구(conjunct)의 순서를 매겨주는 구성요소의 순서매김 원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Pollard & Sag (1992)에는 등위구조를 형성하는 접속규칙과 접속구의 순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또한 접속구를 이끄는 접속사의 종류와 통사적 기능에 대한 상세한 언급이 없다. 이러한 사정은 (13)과 같은 등위구조를 기술하기 위한 기본적인 틀을 불완전하지만 선언적으로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두 개의 접속원리는 등위구조에 있어서 모범주와 접속구가 가지는 정보의 흐름을 보여준다. 이 원리는 접속구를 핵어로 다루는 일반구구조 문법의 핵자질규약(Head Feature Convention)과 유사한 기능을 한다.

#### (14) 접속원리 I .

In a coordinate structure, the CAT and NONLOC value of each conjunct daughter is identical to that of the mother.

(Pollard & Sag, 1992: 229)

(14)는 등위구조상의 모범주와 접속구가 완벽하게 동일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핵어문법이 가정하는 자질이론은 기본적으로 모든 범주의 자질구조가 확정적(resolved)이거나 전체적으로 적절한 유형(totally well-typed)이어야 한다. 따라서 (14)와 같이 접속구의 결합으로 얻어지는 범주가 완벽한 범주이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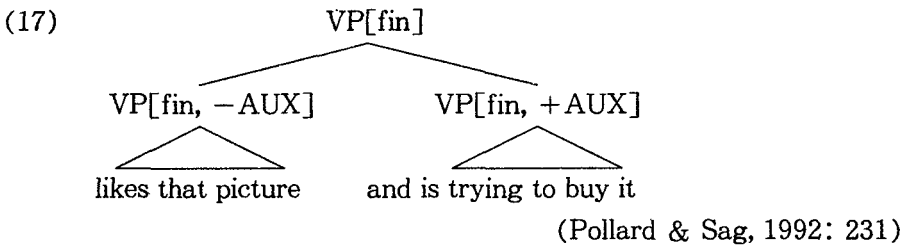
(15) Kim is [[a Republican]<sub>NP</sub> and [proud of it]<sub>AP</sub>]<sub>?,?</sub>.

그러나 (15)와 같은 서로 다른 범주인 접속구를 가진 등위구조에서 모범주와 자범주는 결코 동일한 범주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접속원리 I은 이러한 부류의 등위구조를 기술할 수 없는 약점을 가지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또 하나의 원리가 있다.

(16) 접속원리 II

In a coordinate structure, the CAT and NONLOC value of each conjunct daughter is subsumed by (is an extension of) that of the mother. (Pollard & Sag, 1992: 230)

접속원리 II에 따르면 모범주는 자범주인 접속구를 포섭(subsumption)한다. 원리 II는 (15)와 (17)과 같이 다른 통사적 범주로 이루어진 등위구조를 기술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자질구조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과 배치된다.<sup>3</sup> 즉, 접속원리 II는 모범주와 자범주 간의 포섭관계로 인하여 모범주의 자질구조는 필연적으로 부분적 명세를 할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이 핵어문법이 제시하는 접속이론은 정보의 흐름에 대한 상반된 두 개의 원리와 등위구조의 기본적인 틀만을 보여주는 미약한 접속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치현상이 통사이론으로만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요소간의 의미적 지표를 공유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철저한 통사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를 통사적으로 적시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다시 말해서 접속이론에 의하여 형성되는 접속명사구는 그 통사적 형성과정에 대한 사실을 밝히지 못하더라도 통사적으로 하나의 분립된 단위로서 일치에 참여하며, 이 단위는 범주의 최대투사(maximal projection)로서 하위범주화되고, 격을 제외한 수, 인칭과성은 지시적 명사류의 의미적 정보인 지표와 관련되기 때문에 현재의 접속이론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다음으로 접속원리 II에 따라 불가피하게 범주의 자질구조를 부분적으로 명세하는 것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일

<sup>3</sup> Pollard & Sag(1992: 230, footnote 38)은 접속원리 II가 핵어문법이 기본적으로 가정하는 자질구조 이론에서 벗어나 이론의 철학적 문제를 제기하는 약점이 있으며 이는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를 지적하고 있다.

치이론이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들의 일치자질에 대한 부분적인 명세를 허용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하여 일치 현상을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준다. 전체적으로 보아 현재의 접속이론이 선언적 수준의 미약한 이론인 것은 분명하지만 일치현상을 설명하는 데 결정적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3.2. 접속명사구의 일치

Pollard & Sag(1992)가 제시한 일치이론은 기본적으로 단순명사구의 일치를 다룰 수 있는 정도의 문법적 장치를 제공하지만 등위구조의 일치를 다루는 데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접속명사구의 일치현상을 기술하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접속명사구와 하위범주화의 관계이다.

(18) a. [Sandy]<sub>NP</sub> agrees to the proposals.

b. [[Sandy]<sub>NP</sub> and [Tom]<sub>NP</sub>]<sub>NP</sub> agree to the proposals.

핵어문법의 하위범주화는 그 밖의 구구조문법 이론이 가정하는 바와 같이 범주의 최대투사이다. (18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등위구조에 있어서 그 구성요소인 자범주(conjunct daughter)와 모범주(mother)는 모두 명사구로서 최대투사이다. 하위범주화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하는 것은 핵어에 의하여 하위범주화되는 요소가 통사적 기능을 하는 문법적으로 분립된 단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18a)에서 핵어 agree는 주어로 기능하는 [Sandy]<sub>NP</sub>를, (18b)에서는 [[Sandy]<sub>NP</sub> and [Tom]<sub>NP</sub>]<sub>NP</sub>를 하위범주화한다. 다시 말해서 핵어는 등위구조 내의 접속구인 명사구가 아니라 접속구들이 모여 만들어 낸 모범주인 접속명사구를 하위범주화하고 있다.<sup>4</sup>

이제 Pollard & Sag(1992)가 제시한 일치이론으로 접속명사구의 수와 인칭의 일치를 설명해 보자.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의 자질구조에 대한 부분적인 명세, 하위범주화, 접속이론과 구조의 공유는 단순명사구의 일치를 설명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접속명사구는 주어로서 동사와 수의 일

<sup>4</sup> 접속사 or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접속명사구는 and가 들어 있는 접속명사구와 통사의미적 국면에 있어서 다르다.

i) Either he or I am kidding my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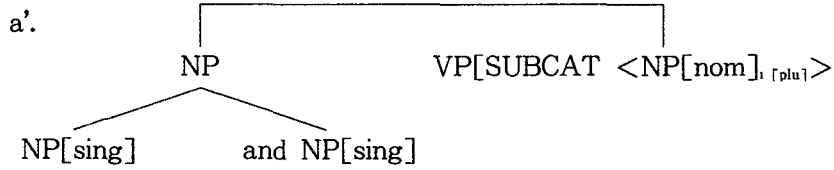
ii) Either I or he is kidding himself.

iii) Either he or she is kidding hersel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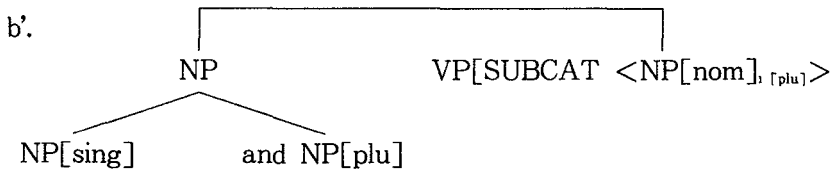
i)~iii)에서 등위구조의 모범주가 하위범주화되는 것이 아니라 접속구가 하위범주화되고 이 요소가 조응요소와 일치를 보인다. 만일 접속구가 하위범주화되는 이론을 따른다면 or를 포함한 등위구조는 생략(ellipsis)에 의하여 다루어져야 한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떠한 형태로든 현재의 이론은 수정·보완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본고에서 논의하지 않기로 한다.

치를 보인다. 접속명사구가 하위범주화되는 요소라는 점에서 단순명사구와 마찬가지로 설명된다.

(19) a. [[Sandy]<sub>NP</sub> and [Tom]<sub>NP</sub>]<sub>NP</sub> agree to the proposals.



b. [[Sandy]<sub>NP</sub> and [her friends]<sub>NP</sub>]<sub>NP</sub> agree to the proposals.



접속원리 II는 (19)의 모범주인 NP의 자질구조가 부분적인 명세이도록 한다. 이 NP는 일치와 관련된 정보가 들어 있지 않은 보편적인 범주이다. 한편 동사 agree는 NP[nom]<sub>i, [plu]</sub>를 하위범주화한다. 여기에서 일치에 참여하는 주어가 비록 보편적인 NP로서 부분적 명세를 할 수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다른 한편에서 참여하는 동사의 자질명세 NP[nom]<sub>i, [plu]</sub>와 양립할 수 있는 명세이기 때문에 이 두 요소들은 구조의 공유에 의하여 결과적으로 일치하게 된다.<sup>5</sup>

접속명사구가 반드시 복수지표를 가져서 동사와 수의 일치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20) a. [Steak and okra]<sub>NP</sub> appears/appear to bother Kim.

b. [Doing phonology problems and drinking vodka]<sub>NP</sub> makes/make me sick.

<sup>5</sup> 자질의 양립성(compatibility)은 접속원리 II를 받아들이는 또 하나의 요인이다. 접속원리 I은 모범주인 접속명사구와 자범주인 접속구가 동일한 범주이기를 요구한다. 따라서 (19a)의 접속명사구가 NP[sing]이 된다. 반면에 (19b)는 NP[sing]임과 동시에 NP[plu]인 명사구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는 적절한 범주가 아니다. 한편 agree의 하위범주화는 VP[SUBCAT <NP[plu]>]이다.

i) a. NP[sing] ← incompatible → VP[SUBCAT <NP[plu]>]

b. NP[sing, plu] ← incompatible → VP[SUBCAT <NP[plu]>]

일치에 참여하는 주어 NP의 자질명세와 술어동사 VP의 하위범주화에 따른 자질명세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자질명세(incompatible feature specification)이다. 이는 두 요소가 구조를 공유할 수 없게 한다.

(20)은 하나의 접속명사구가 주어로서 단수 혹은 복수로 쓰인 예이다. 이는 접속명사구가 언어사용의 맥락에서 [sing] 혹은 [plu]인 지표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다. 이처럼 어휘기호가 아닌 화맥으로부터 정보를 얻는 경우라 하더라도 주어는 부분적으로 명세되는 보편적인 NP이며 각 핵어, agrees/agree의 하위범주화 정보를 각각 NP[nom]<sub>i, [sing]</sub>와 NP[nom]<sub>i, [plu]</sub>로 나타내면 두 요소는 구조를 공유할 수 있게 되므로 일치를 설명하는 것이 된다.

이제 인칭의 일치를 보자. 영어의 인칭대명사는 수와 인칭에 관한 정보를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언어기호이다. 수와 관련된 일치는 이미 위에서 설명하였으나 필요에 따라 함께 설명하기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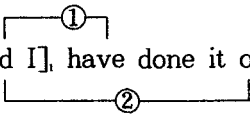
- (21) a. I<sub>i</sub> will do it myself<sub>i</sub>.
- b. You<sub>i</sub> will do it yourself<sub>i</sub>.
- c. He<sub>i</sub> will do it himself<sub>i</sub>.
- d. She<sub>i</sub> will do it herself<sub>i</sub>.
- e. It<sub>i</sub> will do it itself<sub>i</sub>.

인칭대명사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접속명사구도 이러한 수와 인칭의 일치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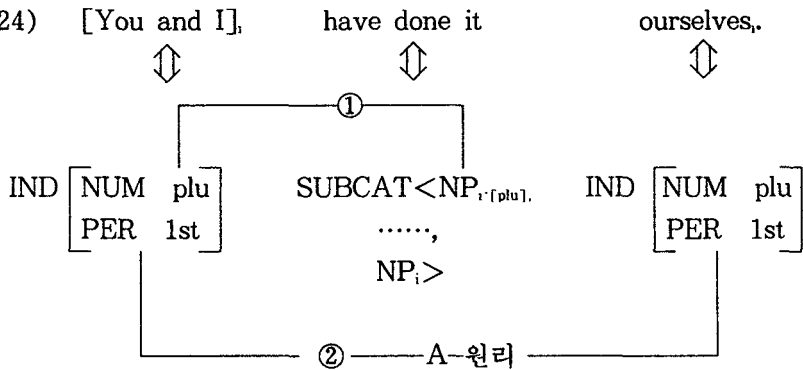
- (22) a. [You and I]<sub>i</sub> have done it ourselves<sub>i</sub>.
- b. [He and I]<sub>i</sub> were kidding ourselves<sub>i</sub>.
- c. [He, you and I]<sub>i</sub> were kidding ourselves<sub>i</sub>.
- d. [He and you]<sub>i</sub> were kidding yourselves<sub>i</sub>.
- e. [She and he]<sub>i</sub> were kidding themselves<sub>i</sub>.

(21)과 (22)로부터 영어의 문법적 성(gender)에 관한 사실을 추출할 수 있다. 인칭대명사의 성(gender)의 구분은 3인칭 단수인 경우에 국한된다는 사실이다. 반면에 1·2인칭 단수 대명사는 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말하는 이와 듣는이를 나타내는 단수 1·2인칭 대명사인 경우에 성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면 이에 대한 정보는 화맥으로부터 가능하며, CXT에 이러한 정보를 표기하면 된다. 물론 언어에 따라서 1·2인칭 단수 대명사의 성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으나 Greenberg(1963)이 지적하는 것처럼 대부분의 언어에서 대명사에 성을 표시하는 것은 1st → 2nd → 3rd의 순서로 함축적 계층(implicational hierarchy)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다른 한편으로 복수인칭 대명사는 인칭의 역할을 불문하고 성을 구분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접속명사구의 일치를 다루는 과정에서 성의 일치를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없다.

인칭대명사로 이루어진 접속명사구의 대표적인 경우로 (22a)를 보자.

(23) [You and I]<sub>i</sub> have done it ourselves.  


(23)은 두 종류의 일치 현상을 보여준다. 하나는 접속명사구와 술어동사의 수의 일치이다. 주어 [You and I]는 접속원리 II에 의하여 가장 보편적인 범주 NP로서 수나 인칭에 관한 정보를 가지지 않는다. 동사 have는 주어인 NP[plu]를 하위범주화한다. 이 요소들은 구조의 공유에 의하여 복수로서 일치한다. 다른 하나는 주어인 접속명사구가 선행사로서 조응요소인 재귀대명사와 일치하는 것이다. 결속이론의 A-원리는 하위범주화된 선행사와 조응요소가 공지표(coindex)되도록 한다. 이에 따라 선행사인 [You and I]는 ourselves와 지표의 모든 내용인 IND[PER 1st, NUM plu]를 공유하게 된다. 일치의 이러한 과정을 그림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24) [You and I]<sub>i</sub> have done it ourselves.  


한마디로 말해서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의 자질구조를 부분적으로 명세하고, 하위범주화, 결속이론을 바탕으로 구조의 공유에 의하여 설명하는 일치이론이 접속명사구의 일치를 설명하는 데 그대로 적용되어 효과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22b)-(22e)를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일치의 전 과정을 살펴보면 ①의 과정을 통하여 주어는 IND[NUM plu]라는 부분적 정보를 확인하게 되고, ②의 과정을 거친 후에 마침내 IND[PER 1st, NUM plu]라는 일치와 관련된 완벽한 정보를 가지게 된다. 바꾸어 말해서 주어가 가지는 정보가 있다면 이 정보는 일치의 과정을 통하여 결과적으로 얻어지는 정보이다. 그렇다면 실제로 발화를 시작하는 단계에서 말하는 이는 [You and I]가 1인칭 복수 대명사라는 언어적 지식을 갖지 않은 채 사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언어사용의 국면에서 볼 때 [You and I]를 발화할 당시에 이미 NP[1st, plu]라는 지식을 가지고 복수인 동사를 선택하여 발화하고, 이어서 조응요소를 발화하는 과정에서

NP[1st, plu]인 ourselves를 선택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이런 전제가 성립하면 일치를 설명하는 문법적 기제가 언어사용의 국면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기계적인 설명으로 언어사용의 심리적 실재를 제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물론 문법적 기제는 언어현상 자체를 설명하는 능력만으로 그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나 문법적 기제가 심리적 실재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면 더욱 강력한 이론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음 절에서는 이 밖에 문제로 제기되는 부분의 논의를 통하여 그 대안을 제시한다.

#### 4. 대 안

우리는 이미 기존의 일치이론이 언어사용의 심리적 실재를 잘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고 지적하였다. 이 외에도 언어적 정보를 얻는 방법과 해석문법이 가정하는 자질이론은 위에 말한 일치이론에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다. 먼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이를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하기로 한다.

먼저 맨 앞 절에서 개괄적으로 제시한 어휘기호와 언어적 정보의 관계를 보자. 언어기호는 언어적 정보를 가진다. 일치와 관련되는 정보는 어휘의 어형변화로 나타나고, 필요한 정보를 일차적으로 그 어휘형태로부터 얻는다. 어형변화를 보이지 않는 기호라면 해당 기호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하게 된다. 이런 경우의 자질구조는 부분적 명세가 된다.

- (25) a. Sandy: [[PER, 3rd], [NUM, sing], [GEND, X]]
- b. her friends: [[PER, 3rd], [NUM, plu], [GEND, X]]

(25)의 Sandy와 her friends로부터 GEND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 이처럼 풍부한 굴절형을 가지지 않는 명사라면 어형변화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나 발화의 맥락에서 Sandy가 여성 혹은 남성이라면 각각 [GEND, fem] 혹은 [GEND, masc]를 얻을 수 있다. her friends 또한 마찬가지이다. 언어적 정보는 일차적으로 어휘형태의 변화로부터, 이차적으로 언어사용의 맥락 즉 화맥으로부터 얻는다.

(26)은 어형변화와 전혀 상관없이 단수인 지표가 부여됨으로써 비로소 문법적 문장임을 예측할 수 있는 예이다.

- (26) *Eggs*<sub>i</sub> is my favorite breakfast and *it*<sub>i</sub> is also to my wife.

*Eggs*는 형태상으로 복수이지만 여러 개의 달걀이라는 의미로서 쓰인 것이 아니라 요리의 일종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IND[3rd, sing]이어야 한다. 그리

고 이 지표는 이어지는 문장에서 그대로 유지된다. 집합명사는 이러한 경우를 더욱 두드러지게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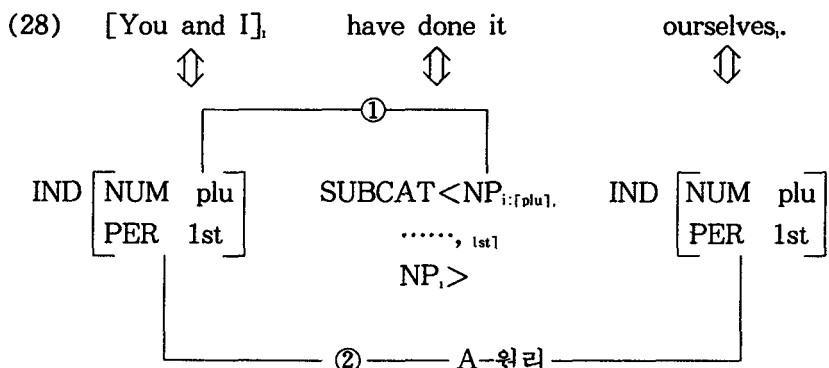
- (27) a. *John's family*<sub>i</sub> is destroying *itself*<sub>i</sub>.  
 b. *John's family*<sub>i</sub> are destroying *themselves*<sub>i</sub>.  
 c. \**John's family*<sub>i</sub> is destroying *themselves*<sub>i</sub>.  
 d. \**John's family*<sub>i</sub> are destroying *itself*<sub>i</sub>.

이상의 몇 가지 예를 통하여 밝혀진 바와 같이 기호의 정보는 일차적으로 어휘기호로부터 얻어지고, 이차적으로 화맥으로부터 얻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가정하에서 접속명사구의 정보는 접속구인 명사구로부터 얻는 것이 일차적이다. 순수한 의미론적인 견지에서 볼 때 여기에서 말하는 정보란 표현이 갖는 의미의 일부 혹은 전부를 말하는 것이다. 접속명사구의 의미를 구성요소인 접속구의 의미로부터 함수에 의하여 얻어낸다는 보편적인 가설에 충실할 때 접속구가 갖는 완벽한 정보로부터 접속명사구의 완벽한 정보를 얻어내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어휘형태의 변화에서 완벽한 정보를 추출할 수 있다면 일부러 화맥으로부터 정보를 추출하여 전체의 정보를 얻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정보를 얻는 효율성의 면에서 보더라도 구태어 이차적인 방법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다. 뿐만 아니라 어휘변화를 통하여 정보를 얻을 수 없을 때 이차적인 방법을 활용하면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인칭대명사는 다른 명사류와 다르게 그 어휘형태로부터 적어도 일치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어휘기호의 하나라는 점에서 이차적인 방법을 동원할 필요가 없는 경우이다.

다음으로 핵어문법이 가정하는 자질이론을 보자. 주어진 모든 기호는 적절한 자질과 이에 대한 적절한 값을 가지는 자질구조로 나타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자질구조는 정보를 표현하는 방편이다. 핵어문법이 가정하는 자질구조는 확정적(resolved)이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유형(totally well-typed)이어야 한다. 이러한 이론적 토대에서 볼 때 자질구조의 부분적인 명세는 기술하려는 대상을 부분적으로 기술하는 것이다. 따라서 핵어문법의 자질이론에 원칙적으로 부합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떠한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정보가 확정적이고 적절한 자질구조로 판명되고 문법적 기제를 적용함에 있어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이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을 잡은 것이라 할 수 있으며 핵어문법의 자질이론에 부합하는 것이 된다.

이제 기존의 일치이론이 보여주는 기계적 설명과 다르게 언어사용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고, 핵어문법이 가정하는 자질이론에 충실한 일치이론이 바람직한 것이라고 가정하자. 그러면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는 완벽한 정보를 나타내는 자질구조이어야 한다. 인칭대명사로 이루어진 접속명사구를 대표하는 (24)를 다시 보자.





주어인 [You and I]는 (24)에서 불완전한 정보를 가진 보편적인 NP이었으나 (28)에서 NP[plu, 1st]가 된다. 그러면 (24)를 발화하는 과정에서 말하는 이는 주어 [You and I]가 화맥상에서 IND[plu, 1st]인 지표를 가지게 되므로 이어지는 동사는 복수형인 have를 사용하고, 주어에 대응하는 재귀대명사는 IND[plu, 1st]인 ourselves를 사용한 것이 된다. 이는 언어사용의 심리적 측면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동사로부터 주어의 일치에 관한 부분적인 정보를 얻고, 조응요소로부터 선행사인 주어가지는 일치에 관한 전체적인 정보를 얻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나중에 사용되는 언어기호로부터 먼저 사용된 기호의 정보를 역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가지는 본래의 정보에 근거하여 주어와 동사의 수의 일치, 그리고 선행사인 주어와 조응요소간의 수와 인칭의 일치를 구조의 공유를 통하여 위에 말한 방법과 동일하게 설명하는 것이다. 이 방법은 일치를 설명함에 있어 이미 있는 문법적 기제를 그대로 이용하지만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의 부분적 자질명세를 허용하지 않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러나 부분적 명세를 허용하지 않는 이러한 설명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정보를 얻는 정당한 방법이 마련되어야 한다. 우선 인칭대명사로 이루어진 접속명사구와 조응요소간의 대응관계를 보자.

- (29) a. [You and I]<sub>i</sub> have done it ourselves<sub>i</sub>.
- b. [He and I]<sub>i</sub> were kidding ourselves<sub>i</sub>.
- c. [He, you and I]<sub>i</sub> were kidding ourselves<sub>i</sub>.
- d. [He and you]<sub>i</sub> were kidding yourselves<sub>i</sub>.
- e. [She and he]<sub>i</sub> were kidding themselves<sub>i</sub>.

(29)는 (22)를 반복한 것이다. 접속구가 가지는 일치에 관한 정보와 선행사인 접속명사구에 대응하는 조응요소의 일치에 관한 정보를 표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30) 접속명사구	조응요소
a. NP[2nd, sing] & NP[1st, sing]	NP[1st, plu]
b. NP[3rd, sing] & NP[1st, sing]	NP[1st, plu]
c. NP[3rd, sing] & NP[2nd, sing] & NP[1st, sing]	NP[1st, plu]
d. NP[3rd, sing] & NP[2nd, sing]	NP[2nd, plu]
e. NP[3rd, sing] & NP[3rd, sing]	NP[3rd, plu]

첫째, and에 의하여 결합되는 접속명사구는 비단 (30)에서뿐만 아니라 화맥에 의하여 단수지표를 가지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복수지표를 가진다. 수에 관한 사항은 비교적 단순하기 때문에 다음에 별도로 다룬다. 둘째, (30a)-(30c)에서 접속구의 수효와 인칭에 대한 정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1인칭인 접속구를 포함하는 접속명사구는 모두 1인칭인 명사구로서 조응요소와 대응한다. 이는 실제로 접속명사구의 인칭은 그 척도(scale)에 있어서 2인칭이나 3인칭보다 1인칭이 우선한다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이다. (30d)는 척도에 있어서 우선하는 1인칭 접속구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2인칭인 접속구와 다른 접속구가 함께 쓰일 때 2인칭으로 서로 대응하는 것을 보여준다. (30e)는 우선하는 1, 2인칭에 관한 정보가 없는 접속구들이 모인 접속명사구는 3인칭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Sag, Gazdar, Wasow & Weisler(1985)와 Warner(1988)에서도 지적하고 있다.<sup>6</sup>

인칭대명사는 적어도 영어에 있어서 어휘형태로부터 일칭에 관한 정보를 가장 정확하게 얻을 수 있는 기호이다. 어형변화를 통하여 보여주는 분명한 정보를 문법적 기제를 적용하기 편리하다는 이유로 이를 버리는 것은 어형변화의 언어적 기능을 배제하는 것이다. 또한 이 정보는 다른 명사와 결합되지 않는다면 그대로 유지되는 독자성을 가진다. 반면에 인칭대명사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접속명사구의 정보는 접속구가 가진 정보가 그대로 유지되지 않고 융합되어 새로운 정보로 나타난다. (30)이 바로 이러한 현상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면 이와 같은 융합된 정보를 얻는 방법은 무엇인가? 통상 인칭에 관

<sup>6</sup> ... the person of any coordinated NP structure is that of the conjunct which ranks highest in a scale where 1st has priority over 2nd, and 2nd over 3rd (Warner, 1988: 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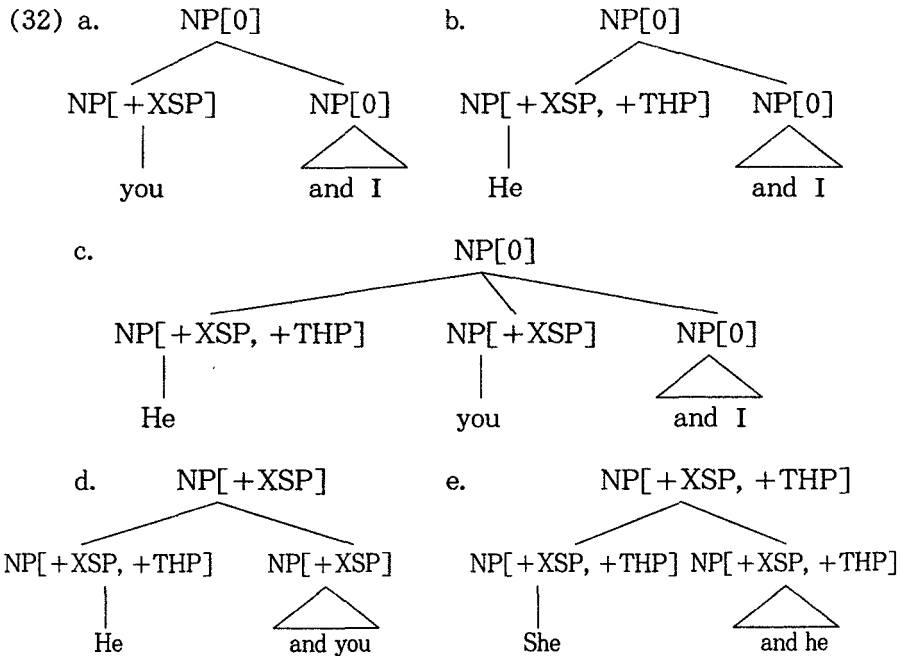
이와 같은 현상은 불어에서도 관찰된다.

- i) [Lui et toi], vous [vous], ferez mal.  
'You and he will hurt yourselves.'
- ii) [Toi et moi], nous le ferons [nous-memes].  
'You and I will do it ourselves.'

한 정보는 [PER 1st], [PER 2nd], [PER 3rd] 등과 같이 분립된 정보의 단위로 표시한다. 이에 따르면 각 인칭은 별개로 독립되어 인칭 상호간에 존재할 수 있는 유기적 관계를 정립할 수 없는 것이 된다. 그러나 영어의 세 가지 인칭은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러한 관계를 반영하기 위하여 인칭의 내부구조를 더 세분된 자질구조로 나타낼 수 있다.

- (31) a. 1st person: 0 (=unspecified)
- b. 2nd person: [+XSP]
- c. 3rd person: [+XSP, +THP] (Warner, 1988: 41)

1인칭은 인칭에 관한 자질을 명세하지 않는다. 다만 명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0으로 표시하여 1인칭임을 나타낸다. [+XSP](= eXcluding SPeaker)는 1인칭이 아님을 보이는 단자질(unary feature)이고, [+THP](= THird Person)는 1, 2인칭이 아님을 보이는 단자질이다. 이처럼 각 인칭을 단자질을 이용한 자질구조의 집합으로 처리하면 인칭간의 유기적 관계가 확인된다. 다른 인칭의 결합을 보인 (29)를 (31)의 단자질을 이용하여 나타내 보자.



(32)는 단자질을 이용하여 우선 접속구의 인칭에 관한 정보를 완벽한 자질구조로 나타내고 있다. 이 자질구조의 교집합은 접속명사구의 자질구조로 나타나 인칭에 관하여 우리가 원하는 정보를 보여준다. 이는 접속구들이 가

지는 정보가 융합되어 새로운 정보를 보여주는 것이나 마찬가지로이다. 그렇다면 이런 사실을 반영하기 위하여 접속구의 인칭에 관한 지표를 합성하는 장치가 필요하다.

### (33) 인칭의 합성

접속명사구 NP가 인칭에 대한 지표를 가진 접속구  $\alpha_i, \beta+1, \dots, \gamma_n$ 를 포함하면 지표합성함수  $\Phi$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hi(\alpha_i, \beta+1, \dots, \gamma_n) = \bigcap_{i \in \text{PER}} (\alpha_i, \beta+1, \dots, \gamma_n)$$

다만, i) 1인칭 = 0 (명세되지 않음),

ii) 2인칭 = [+XSP],

iii) 3인칭 = [+XSP, +THP] 이다.

합성함수  $\Phi$ 는 접속구의 인칭에 관한 지표의 내용을 합성하여 (32)에 보인 바와 같은 접속명사구의 적합한 지표를 얻도록 한다. 그 결과 주어진 기호의 확정된 자질구조로의 표현을 요구하는 핵어문법의 기본적인 가정에 더욱 접근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언어사용의 심리적 실재에 한층 더 접근하는 것이 된다.

접속명사구의 수에 관한 정보를 보자. (30)을 보면 단수인 지표를 가진 접속구들이 모여 접속명사구를 이루면 복수인 지표를 가진다. 접속구가 어떤 지표를 가지더라도 복수지표를 가진 다른 접속구와 함께 접속명사구를 이루면 복수지표를 가진다. 이러한 양상은 인칭에 관한 정보와는 전혀 다른 속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여러 가지 인칭이 복합되어 있는 접속명사구는 세 가지 인칭 가운데 언어사용의 습관에 따라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성향이 있지만 단수와 복수의 상호관계는 단수는 복수에 포함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지시적 명사류가 산술적으로 하나인 단수지표를 가진 접속구이고 이와 동일한 지표를 가진 접속구와 결합하면 접속명사구는 둘 이상이라는 산술적 개념으로 융합되어 복수인 지표를 가진다. 그 결과 복수인 지표를 가진 접속구는 어떤 지표를 가진 접속구와 결합하더라도 결국 산술적으로 둘 이상이라는 개념을 나타내는 복수인 지표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인칭과 관련된 지표를 다루던 것과 다른 유형의 지표의 합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 (34) 수의 합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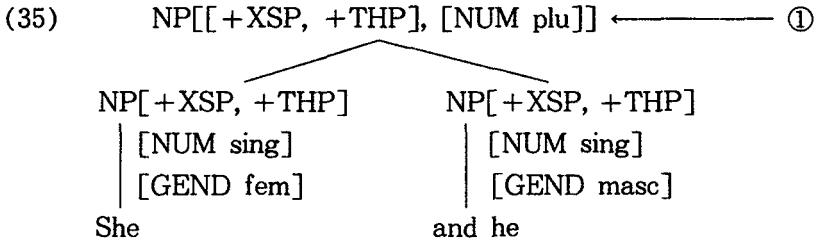
접속명사구 NP가 수에 대한 지표를 가진 접속구  $\alpha_i, \beta+1, \dots, \gamma_n$ 를 포함하면 지표합성함수  $\Phi$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hi(\alpha_i, \beta+1, \dots, \gamma_n) = \text{NP}_{i: \{ \text{plu} \}}$$

다만, i = [sing]  $\vee$  [plu]

(34)는 접속명사구의 수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이 합성함수  $\emptyset$ 를 접속명사구의 성의 문제를 기술하는 데 있어서 수와 인칭에 적용되는 바와 마찬가지로 이를 적용이 가능한지 살펴보자.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영어에 있어서 문법적 성의 구분은 3인칭 단수인 경우에 국한된다는 것이다. 예컨대 (32e)에 수와 인칭에 관한 정보를 부가한 경우를 보자.



(35)에서 접속구인 3인칭 단수인 she와 he는 각각 단수지표를 가지며 [GEND fem]과 [GEND masc]을 가진다. 합성함수  $\emptyset$ 는 인칭과 수에 대하여 ①과 같은 합당한 결과를 얻도록 한다. 또한 ①은 they가 가지는 지표로서 복수인 지표이다. 성에 관한 정보는 이제까지 예들 든 접속사 and를 포함하는 접속명사구가 복수지표를 가지고 이 지표를 가진 경우에 성에 관한 정보는 유효적이지 않았다. 따라서 성에 관한 정보를 구태여 함수에 의하여 합성하는 과정을 거칠 필요가 없다.

(36) 지표의 합성

접속명사구 NP가 지표를 가진 접속구  $\alpha_i, \beta_{i+1}, \dots, \gamma_n$ 를 포함하면 지표합성함수  $\emptyset$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첫째,  $i$ 가 인칭을 나타내면

$$\emptyset(\alpha_i, \beta_{i+1}, \dots, \gamma_n) = \bigcap_{i \in \text{PER}} (\alpha_i, \beta_{i+1}, \dots, \gamma_n),$$

다만, i) 1인칭 = 0 (명세되지 않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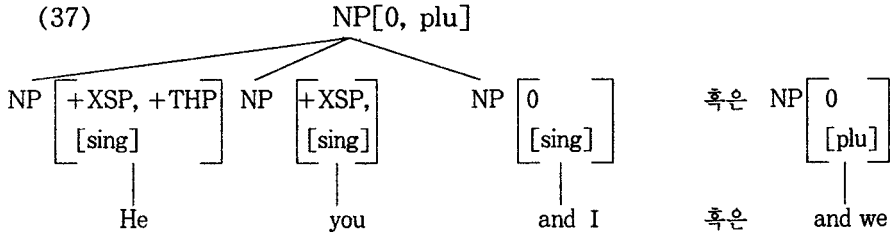
ii) 2인칭 = [+XSP], iii) 3인칭 = [+XSP, +THP]

둘째,  $i$ 가 수를 나타내면,

$$\emptyset(\alpha_i, \beta_{i+1}, \dots, \gamma_n) = \text{NP}_{i: \{ \text{plu} \}},$$

다만  $i = [\text{sing}] \vee [\text{plu}]$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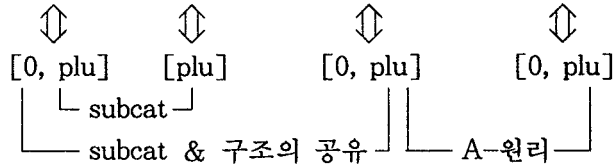
이제 지표합성함수  $\emptyset$ 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보자.



접속구 내부의 자질구조는 단자질을 이용하여 표기하기 때문에 다소 복잡하게 보이지만 문제될 것이 없다. 지표합성함수  $\emptyset$ 는 인칭에 관한 정보에 적용되어 접속구의 교집합에 의하여 공집합이 된다. 이는 1인칭을 나타내는 [0]으로 표기된다. 그리고  $\emptyset$ 는 접속구의 수에 관한 정보에 적용되어 [plu]를 내어준다. 그 결과 접속명사구의 지표는 1인칭 복수가 된다. (37)의 지표는 기존의 표기로 나타내면 IND[[PER 1st], [NUM plu]]이다.

이제 지표합성 함수를 적용하여 일치를 설명하는 것이 관련된 문법적 기제와 어떤 관계에 놓이는지 살펴보자.

(38) [He, you and I]<sub>i</sub> are considered to be kidding ourselves.



(38)은 선행사와 조응요소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는 통제현상(control)과 관련된 문장이다. 이 문장의 통사적 관계를 보면 불완전 조동사 to는 부정사구를 이끌고 하위범주화 요소로 주어인 [He, you and I]를 공유한다. 그리고 A-원리는 이 주어와 재귀대명사를 공지표되도록 한다. 비록 이 문장 내의 일치요소들이 통사적으로 복잡한 관계를 보이지만 위에 표기된 바와 같이 Pollard & Sag(1992)에서 제시된 기존의 문법적 기제가 이 문장의 일치를 설명하는 데 수정없이 이용된다. 차이가 있다면 접속명사구인 [He, you and I]가 완벽한 정보를 가진 자질구조라는 점이다. 앞서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He, you and I]를 발화할 당시에 이에 대한 정보가 없는 채 문장의 마지막에 있는 ourselves로부터 여러 단계를 거쳐 정보를 확인한다는 것은 이 문장의 발화과정에 개재하는 언어사용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반면에 지표합성함수에 의하여 일치에 관한 완벽한 정보를 얻고, 이로부터 출발하여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를 순서에 따라 선택하는 과정을 밟는다면 언어사용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되면 [He, you and I]의 자질명세에서 시작하여 이어지는 요소들의 일치관계는 문장 내에서 자연스러운 연계가 이루어진다.

마지막으로 이제까지 설명한 대안이 가지는 의미를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 볼 수 있다. 어휘기호는 그 자체로서 정보의 복합체이다. 이러한 정보는 어휘기호와 화맥으로부터 얻는다. 어휘기호로부터 얻는 정보가 일차적이라면, 화맥에 의한 정보는 어휘기호로부터 얻을 수 없는 경우에 발화의 맥락으로부터 얻어내는 이차적인 방법이다. 발화의 맥락에 동원되는 다양한 요인과 이 요인들의 상관관계는 아직 체계적이지 못할 뿐더러 대단히 복잡하다. 반면에 어휘기호가 보여주는 분명한 정보는 있는 그대로 자질구조로 나타내는 것이 기호의 언어적 기능을 보여주는 것이다. 더욱이 영어의 인칭대명사는 수와 인칭에 관한 정보를 어형변화를 통하여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이차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보다 어휘기호로부터 얻어지는 일차적 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또한 어휘기호로부터 얻는 이러한 정보는 접속이론에 의하여 만들어진 등위구조의 정보로 융합되는 것이 언어사용의 의미적 측면을 보여주는 것일 뿐만 아니라 부분적인 의미의 융합으로 전체의 의미를 추출하는 것이 대개의 의미이론이 채택하는 기술방법이기도 하다. 지표를 합성하는 방법은 이런 기술방법의 일환이다.

등위구조상의 모범주가 가지는 자질구조는 접속원리 II에 의하여 지극히 부분적 명세일 수밖에 없다. 지표의 합성에 의한 모범주의 자질구조는 접속원리 II에 의한 부분적 명세보다 더 풍부해진 자질구조를 가진다. 이런 점에서 기호의 자질구조가 확정적(resolved)이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유형(totally well-typed)이라고 가정하는 자질이론에 한층 충실해지는 결과가 된다.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의 부분적인 명세를 허용하는 설명 방법은 어휘부(lexicon)의 크기를 크게 줄여주는 효과를 가진다. 지표의 합성은 등위구조 내의 어휘기호가 갖는 지표에 대하여 적용되는 함수이기 때문에 부분적 명세를 허용하는 장점은 그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지표의 합성은 인칭에 있어서는 교집합으로 모범주의 정보를 나타내고, 수에 있어서는 모두 복수로 처리되기 때문에 접속원리 II를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생긴다. 한편 다른 문법이론이 적절한 접속이론을 제시하지 못하는 현실과 접속원리가 순수하게 의미적 국면을 제외한 순수한 통사적인 기제라면 의미에 관한 정보를 합성하는 것은 별개 차원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 5. 결 론

해어문법이 제시하는 일치이론의 기본적인 골격은 일치에 참여하는 요소의 자질구조를 부분적으로 명세하고, 하위범주화 이론과 접속이론을 바탕으

로 문법적 기제인 요소간의 구조의 공유로 이루어진다. 이 논문은 가장 설명하기 어려운 현상 가운데 하나인 접속명사구의 일치를 설명함에 있어서 Pollard & Sag(1992)가 제시한 일치이론을 기본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발화의 맥락에서 볼 때 언어사용의 심리적 실재를 반영하지 못하고 언어정보의 기초를 이루는 어휘기호에 나타난 정보를 외면하는 두 가지 문제를 제기한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등위구조 내의 접속구인 어휘기호가 가지는 의미적 정보를 나타내는 지표를 모두 표기하여 어휘기호가 본래 가지는 정보를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다. 그리고 수와 인칭에 관한 자질을 단 자질을 이용하여 수와 다른 인칭간의 유기적 관계를 파악한다. 접속명사구에 융합되어 나타나는 새로운 정보를 얻기 위하여 일치와 관련된 지표합성 함수를 정의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나타나는 결과는 정보를 자질구조로 나타낼 때 해당 기호의 자질구조가 확정적이고 전체적으로 적절한 유형이어야 한다는 핵어문법이 가정하는 자질이론에 기존의 방법보다 한층 더 가까워지는 이점이 있다. 뿐만 아니라 지표합성 함수에 의하여 얻어진 정보는 발화의 시작에서 화자가 가진 언어지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일치를 설명하는 문법적 기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순서적으로 연계되어 언어사용의 심리적 실재를 문법이론에 반영하는 결과가 된다.

## 참고문헌

- Barlow, Michael (1988) 'Unification and Agreement,' *CSLI Report* 88-120.
- Borsley, Robert (1987) 'Subjects and Complements in HPSG,' *CSLI Report* 87-107, Stanford: CSLI.
- Borsley, Robert (To appear) 'Subjects, Complements, and Specifiers in HPSG,' in Carl Pollard and Ivan A. Sag (eds.) *Readings in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 Borsley, Robert (1991) *Syntactic Theory: A Unified Approach*, Edward Arnold, Great Britain.
- Carpenter, Bob (1990) 'Typed Feature Structures: Inheritance, (In)equality, and Extensionality,' Paper presented on International Workshop on Inheritance and Natural Language Processing in Tilburg, The Netherlands.
- Carpenter, Bob (1991) 'Typed Feature Structures: A Generalization of First Order Terms,' *Proceedings of 1991 International Logic Programming Symposium*, San Diego, MIT Press.



- Carpenter, Bob (1992) 'The Logic of Typed Feature Structures,' *Cambridge Tracts in Theoretical Computer Science* 32,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orbett, Greville G. (1988) 'Agreement: A Partial Specification Based on Slavonic Data,' In Michael Barlow and C. A. Ferguson (eds.) *Agreement in Natural Language: Approches, Theories, Descriptions*, Stanford: CSLI.
- Gazdar, Gerald, Ewan Klein, Geoffrey Pullum, and Ivan A. Sag (1985) *Generalized Phrase Structure Grammar*, Oxford: Blackwell's and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Greenberg, J. H. (1963) 'Some Universals of Grammar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the Order of Meaningful Elements,' in J. H. Greenberg (ed.) *Universals of Language*, Cambridge, Mass.: The MIT Press.
- Lapointe, Steven G. (1988) 'Toward a Unified Theory of Agreement,' In Michael Barlow and C. A. Ferguson (eds.) (1988) *Agreement in Natural Language: Approches, Theories, Descriptions*, Stanford: CSLI.
- Lehmann, C. (1988) 'On the Function of Agreement,' In Barlow, Michael and C. A. Ferguson (eds.) *Agreement in Natural Language: Approches, Theories, Descriptions*, Stanford: CSLI.
- Pollard, Carl (1987) 'Sorts in Unification-Based Grammar and What They Mean,' Paper presented at the Workshop on Mathematical Theories of Language in LSA Summer Institute, Stanford University, July, 1987.
- Pollard, Carl and Ivan A. Sag (1987) *Information-based Syntax and Semantics, vol. I: Fundamentals*, CSLI Lecture Note No. 13, Stanford: Center for the Study of Language and Information.
- Pollard, Carl and Ivan A. Sag (1992)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Final Draft to be Published b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and CSLI Publications.
- Pollard, Carl and Ivan A. Sag (1992) 'Anaphors in English and the Scope of Binding Theory,' *Linguistic Inquiry* 23: 261-303.
- Poser, William J. (1992) 'Blocking of Phrasal Constructions by Lexical Items,' in Ivan A. Sag and Anna Szabolcsi (eds.) *Lexical Matters*, CSLI Lecture Notes No. 24: 111-130.
- Proudian, Derek and David Goddeau (1987) 'Constituent Coordination in HPSG,' *CSLI Report* 87-97.

- Sag, Ivan, Gerald Gazdar, Thomas Wasow & Steven Weisler (1985) 'Coordination and How to Distinguish Categorie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3: 117-171.
- Warner, Anthony R. (1988) 'Feature Percolation, Unary Features, and the Coordination of English NP's,' *Natural Language and Linguistic Theory* 6: 39-54.

## ABSTRACT

### Coordinated NP and its Agreement in English

Hyomyong Park

This paper describes the agreement phenomena of English coordinated NP containing the conjunction within the framework of Head-driven Phrase Structure Grammar. It also keeps pace with the standard theory of Pollard & Sag (1992), which introduces the general mechanism to explain the agreement phenomena, such as subcategorization, structure sharing and binding theory. Especially it emphasizes that so-called agreement can be explained properly by the structure sharing of semantic attribute, INDEX, of constituents participating in the agreement phenomena. It also permits the partial specification of feature structure of the constituents.

One of the thorny problems in describing the agreement is to describe the agreement of the constituent of coordinate structure. The coordinated NP in English is such an example. Traditionally the features for person such as [PER 1st], [PER 2nd] and [PER 3rd] are considered unanalyzable unit, i. e., monadic, but they are not appropriate in describing the coordinated NP in English. To overcome this inappropriateness, we adopt the unary feature system which is represented as 0 for 1st person, +XSP for 2nd person, and {+XSP, +THP} for 3rd person. And we use [sing] for a singular number and [plu] for a plural number in order to reflect the duality of English number system.

Based on the feature system above, we introduce the index composing function  $\Phi$ . It works on the complex of unary feature of each constituent so that it provides the proper INDEX of coordinated NP in English with

respect to its person and number. This will not only lead to the reflection of psychological reality of language use. But also it gets closer to the assumption that the feature theory adopted in HPSG requires that the type of feature of any sign be resolved and totally well-typed. Additionally such treatment has an advantage that we may not depend on the contextual background knowledge in getting the linguistic information of any sign.

500-757

광주직할시 북구 용봉동 300

전남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hpark@rs6.chonnam.ac.kr>